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음 10월 5일) 제21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늦가을 정취 물씬

단풍으로 물들어 고운 빛깔 뽐내

11일 주황색으로 곱게 물든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 터널~세동리) 메타세쿼이아 길에 보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10월 말부터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부귀면 메타세쿼이아 길은 현재 고운 빛깔을 뽐내며 가을이 깊어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 길은 진안에서 전주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에 위치한 1.5km 구간으로 영화 국가대표,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아우디 CF 등 각종 드라마나 영화 촬영의 배경이 되면서 사진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이곳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다.

산책하듯 걸어보거나 드라이브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진안=우태만 기자

내년 살림 7조원 시대 열리나?

전북도, 7조554억원 규모 예산안 의회 제출... 올해보다 10.1% 증액

경제 대도약 위한 일자리 산업구조 체질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중점

전북도는 6,478억원(10.1%)이 증가한 7조 554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013억원(9.8%)증가한 5조 6,314억원, 특별회계는 1,046억원(21.3%) 증가한 5,951억원, 기금은 417(5.3%)억원이 증가한 8,289억원 규모다.

올해 처음 6조원 시대를 넘어 무려 1년 만에 큰 폭의 규모로 증가한 7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경제활력 대도약을 위한 일자리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폭염과 악취 등 주민밀착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 반영했다.

세입여건으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억제정책, 대내외 금리인상 압박요인으로 306억원(3%)이 증가한 1조5,744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과 정부 재정확대 기조에 따라

1,605억원(19.5%)이 증가한 9,824억원으로 전망된다.

중앙보조금 용도지정 재원은 3,325억원(11.2%)이 증가한 3조3,006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출수요는 공공부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대비부담 소요는 크게 증가한다.

또한 도정 핵심정책인 삼라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산업, 여행체험1번지, 도민생활과 밀접한 SOC 지출 수요도 늘어난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개발(50.8%), 산업경제(34.8%), 사회복지(11.6%), 농림수산(7.6%)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1,109억원(37.5%), 농림수산 9,483억원(16.8%), 공공행정 4,435억원(7.9%)순으로 높았다.

최근 고용약화 및 내수부진으로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

구조 체질개선,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 투자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고도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등 산업구조 체질개선에 대비 49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직접사업 203억원을 포함 경우 701억원이 투자된다.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경력단절여성 등 58개 사업에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1,243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정책은 전북을 대표하는 복지 일자리 문화 거버넌스 등 분야별 브랜드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145억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0.8% → 0.6%로 완화), 백년의 집 육성 등 24개 사업에 125억원이 반영됐다.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 받는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은 본격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구단위 계획변경,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등에 63억원이 신

규 반영됐다.

또한 경제활력도모를 위한 낙후지역 개발 도시재생 등 국토개발 분야에 1,088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도정 3대 핵심정책의 진화를 통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투자 된다.

삼라농정 농생명 산업은 1,622억원이 반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청년보육실습농장, 기반조성, 실증온실, 지원센터, 임대형 팜조성 등에 319억원이 반영됐다.

융복합 미래산업은 친환경 상용특장차 부품고도화에 10억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 전장산업 생태계구축 22억원, 고분자연료 전자신뢰성 평가센터 3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 총 464억원이 편성됐다.

여행체험 1번지사업은 태권도원 콘텐츠 제작지원 11억원, 생태복색관광자원개발 1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 702억원이 편성됐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산업경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악취관리 대책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독감 조기유행 대비하세요'

도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도, 주의 당부
유행 시기 앞서 미리 예방접종·손 씻기 등 철저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겨울 도내에서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독감에 대한 도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 5~7일 사이에 전주, 부안 지역에 내원한 환자 21명의 검체 중에서 검출된 것으로 인플루엔자 A(H1N1)pdm09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A(H1N1)pdm09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3N2)형, 인플루엔자 B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매년 검출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2018-2019절기가 시작된 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검출됐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절



〈출처=구글 이미지〉

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시기는 작년보다 3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바이러스 검출시기가 빨라진 만큼 인플루엔자 유행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백신은 접종 후 예방 효과가 2~4주

걸리는 것을 고려해 유행 시기에 앞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 에티켓(휴지, 옷기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잘 지키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하는 것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탕 전주